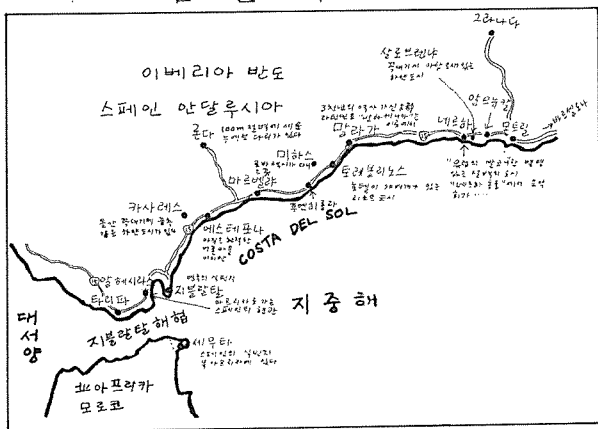


코스타 델르 솔의

하얀 도시들

김 윤 기



코스타 델르 솔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20년 남짓이다. 그전에는 몇몇 예술가들이 드문드문 찾는 한적한 유럽의 시골, 소박한 바닷가 마을에 불과했다. 때문인가, 감나무에 연결리듯 수없이 많은 도시들이 바닷가에 널려 있으나 모두 인구 1, 2만도 안 되는 작은 도시들이다.

「코스타 델르 솔(Costa del Sol)」이란 「태양의 해변」이란 뜻의 스페인말이다. 비가 적고, 항상 푸른 하늘과 하얀 태양을 볼 수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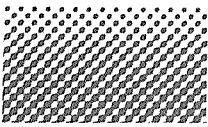
유럽은 원래 햇빛이 부족한 대륙이다.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멍만 뚫리면 모두 별거벗고 밖으로 뛰어 나가는 것이 유럽인의

버릇이다. 그런데 코스타 델르 솔은 언제나 활짝 개인 푸른 하늘과 햇빛을 볼 수 있다.

코스타 델르 솔은 스페인의 남쪽 끝 타리파(Tarifa)에서 지중해쪽의 모트리(Motril)까지 약 300km에 이르는 해변이다. 유명한 지블랄탈도 이곳에 있지만, 공공롭게도 영국의 식민지라 이 지방 사람들은 잇몸에 생긴 흑으로 여기고 있다.

「말라케니아」의 고향 말라가

코스타 델르 솔의 중심지는 말라가(Málaga)다. 말라가는 인구 50만의 대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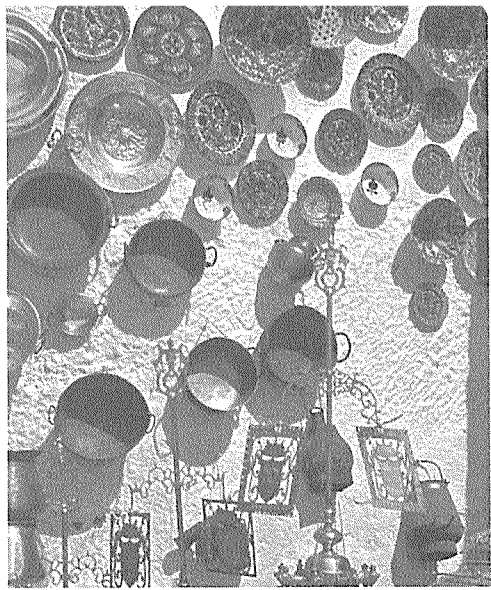
로 오랜 역사를 가진 고도(古都)다. 3천년 전 지중해에서 세를 떨치던 페니키아인에 의해 만들어진 말라가는 그 지리적 이유 때문인가 칼타고, 로마,西哥트, 아랍 등의 세력이 교대로 지배하여 말라가의 역사는 비운의 식민지역사로 얼룩지고 있다.

말라가는 우리에게 라틴민요「말라케니아」로 더 널리 알려져 있다. 또 피카소의 고향(출생지)이기도 하며, 식후주(食後酒)로 이름난 검은색 포두주「말라가 와인」의 원산지다.

시내에는 각 시대의 유적이 많이 남아 있다. 시내 한복판에 있는 카테드랄(대사원)은 16세기에 착공된 르네상스와 고딕 혼합식의 아름다운 건축물이다. 「한쪽팔의 귀부인(La Manquita)」이란 이상한 별명을 가진 이 카테드랄은 18세기에 이르러 왕이 건축 중지 명령을 내려 두번째 탑 시공중 공사가 중단, 미완성이 된채 남아 있다.

카테드랄 뒤에 있는 미술관은 16세기때 세운 무대할 양식의 옛 궁전이다. 지금은 피카소와 무리요, 리베라, 아론소·카노 등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다.

미술관의 동쪽에는 알카자바(Alcazaba)가 있다. 11세기 아랍왕이 세운 성(城)이다. 알카자바와 연이어 가파른 언덕 위에 또 하나의 아랍城 히브랄파르가 있다. 언덕이 너무 높아 걸어 오르기에겐 좀 힘들다. 이 꼭대기엔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전망대가 있다. 이 밖에 로마극장유적과 피카소의 생가 등이 말라가의 명소들이다. 멀리 부둣가 끝에는 말라가의 심벌이 된 파올라 등대가 있다.



▲ 하얀 벽에 걸어놓은 기념품 가게의 진열품들. 코스타 델르 솔의 마을에선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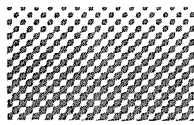
갑자기 번창하는 트레몰리노스

그러나 말라가를 찾아오는 관광객은 말라가의 역사유적을 보려고 오는 것이 아니다. 말라가를 중심으로 한 코스타 델르 솔의 자연과 풍광을 찾아 오는 것이다.

최근 리조트지구로 각광을 받고 있는 토레몰리노스(Torremolinos)는 말라가에서 버스로 30분 거리에 있다. 말라가 공항에서 직행버스를 타면 18분에 닿는다. 인구는 겨우 18,000명의 작은 도시지만 호텔이 70여개가 있다. 장기체류를 희망하는 관광객이 많은 곳으로 이들을 위한 콘도미니엄이 있다.

「유럽의 발코니」라는 네르하

말라가에서 동쪽으로 51km, 버스로 1시



간반 거리에 네르하(nerja)가 있다. 「용솟음치는 샘」이란 뜻의 이 도시는 겨우 인구 8,300명의 작은 마을이나, 「유럽의 발코니」란 별명을 가지고 있다. 고구마처럼 바다로 불쑥 튀어나온 깎아지른 절벽이 있기 때문이다. 이 절벽위에 1천년전 아브데라만3세가 쌓은 성채유적이 있다.

최근에는 「네르하 동굴」로 유명해지고 있다. 1959년에 발견된 이 동굴은 종유동(鍾乳洞)인데, 3천년전 사람이 살던 흔적이 발견되었고, 선사시대부터 청동기시대의 고대 유적이 발굴되어 역사학자의 주목을 끌고 있다. 또 동굴안에는 높이 60m나 되는 거대한 광장 「폭포의 광장」이 있다. 이곳에선 매년 8월 무용음악제가 열리는 데, 클라식발레가 최고 인기다.

하얀 집의 하얀 마을들

코스타 델르 솔의 가장 인상적인 풍경은 하얀집이다. 빨간 기와를 얹은 하얀집은

짓푸른 하늘과 조화되어 묘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꼬불꼬불 미로처럼 엉킨 골목길과, 창밖에 내놓은 꽃 화분, 그리고 이곳에서 사는 촌티나는 주민들. 지구상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이색 풍경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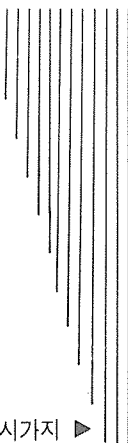
카사레스(Casares)는 그중 대표되는 하얀도시다. 이름조차도 「하얀마을」이다. 아래는 돌과 바위가 절편한 황무지이지만 올려다보면 꿈속의 도시같은 하얀집들이 보인다.

말라가에서 30킬로 떨어진 내륙도시 미하스(Mijas)도 하얀 도시다. 「코스타 델르 솔의 폐(肺)」란 별명을 가진 이 도시엔 제주도 말만한 로바가 택시구실을 한다. 이 마을에 TAXI란 간판을 붙이고 다닌다.

시내에는 4각형의 이상한 투우장도 있는데, 코스타 델르 솔의 하얀도시들중 가장 아름답다는 평을 듣고 있다. 인구 1만 명의 살로브레냐(Salobrena)도 하얀 마을이다. 언덕위에 흰집들이 성냥꽂처럼 다닥다닥 붙었고, 산 꼭대기엔 아랑시대의 요



◀ 하얀도시 카사레스. 하얀 집과 붉은 기와, 짓푸른 하늘이 그림처럼 아름답다.



마르베자의 시가지 ▶

아랍풍의 도시 알헤시라스와 미완성 관광지들

새가 있다. 이곳에는 철도가 없어 버스로 가야한다. 그라나다에서 버스로 2시간 거리다.

산 사나이의 도시, 론다

해변가가 아닌 내륙에도 인상적인 도시가 많다. 론다(Ronda)는 험준한 산속에 있는 산간도시다. 론다의 젊은이들은 『Yo soy serrano<나는 산(山) 사나이이다>』라고 스스로를 자랑하고 있다.

론다에는 유명한 누에보다리가 있다. 높이 100m나 되는 절벽사이에 놓인 이 돌다리를 사이에 두고 한쪽은 구시가, 한쪽은 신시가다. 구시가지에는 16세기때 지은 교회와 무대할 양식의 궁전(몬드라곤宮), 아랍시대의 목욕장 등 유적이 있다. 또 론다는 투우의 발상지이기도 하다. 투우사가 입는 망토와 무레타는 론다 출신의 투우사 프라시스코·로메로가 처음 사용했다 한다. 그의 손자인 페드로는 스페인 역사상 가장 위대한 투우사이기도 하다. 론다의 투우장은 1785년 건립된 것으로 스페인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다.

알헤시라스(Algeciras)는 이베리아 반도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항구도시다. 아프리카로 가는 유럽의 마지막 항구도시이기도 하다. 알헤시라스는 8세기때 아랍인이 상륙했던 항구라서 그런지, 아랍풍의 도시다. 거리의 간판에선 아랍문자를 흔하게 볼 수 있다. 인구는 겨우 7,700명으로 작은 도시지만, 아프리카로 가는 스페인의 현관이다. 북아프리카에 있는 세우다(스페인영토)를 비롯, 모로코로 가는 배가 이곳에서 떠난다. 시내에는 6각형의 시장이 있다.

최근에는 마르베자(Marbella), 알무뉴칼(Almuñécar) 등이 새로운 관광지로 개발되고 있다. 「아름다운 바다」란 뜻의 마르베자에는 고급별장과 호텔들이 수 없이 신축중이며, 토레몰리노스에서 이곳까지 이르는 47km의 바닷가 도로 양쪽에는 예쁜 개인별장들이 수없이 늘어서 있다. 말라가에서 86km, 좀 멀리 떨어진 알무뉴칼은 아직 미완성관광지이지만, 앞으로는 크게 발전할 휴양도시로 손꼽히고 있다.

〈필자=해외의 학교류회장. 최신여행정보 발행인〉